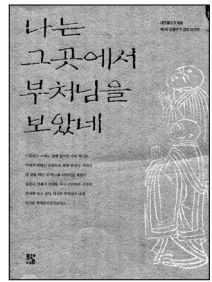


# 인생 고비서 만난 불보살 지혜

나는 그곳에서 부처님을 보았네

모나루 편집부 엮음 | 1인2천원



“아내가 내 곁을 떠난 지 어느새 10년이 된 세월이 흘렀다. 언젠가 아내를 다시 만난다면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다. 당신은 부처님이 내게 보내준 관세음보살이었다고...” (조희성)

“잘 나가던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났다. 그러나 부처님 법을 만난 이후에 어려움을 주셔서 감사했다. 어려움을 헤쳐나갈 힘과 용기를 주셨기에 생활은 상당히 어려워졌지만 마음만은 어느때보다 행복했다. 돈이 주는 행복이 제일 크다고 믿었던 나에게 부처님 법을 만나서 얻은 행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환희로웠다.” (전명숙)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불치의 병마가 주는 죽음에 대한 공포, 연이은 사업 실패에 따른 극단적인 좌절감, 속명처럼 주어진 장애를 가진 이의 고독감과 절망감 등

이 닥친다면 과연 어떻게.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절망감이 엄습하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자신의 의지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삶의 끝에서 오히려 숙연함이 들 것이다. 이때 누군가가 내 의지처가 되고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 위로해 준다면 인생의 아픔을 희망으로 바꿔갈 수 있을 것 같다. 이 책에 소개된 20편 글들은 바로 인생의 위기서 우연한 기회로 만난 불교와의

### 제1회 조계종 신행수기 모음집

20편 신행담 큰 감동 전례취

인연으로 시련을 극복하며 참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담았다. 한마디로 신행수기 모음집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이 주최하고 법보신문과 불교방송이 주관해 올해 처음 시행한 제 1회 신행수기 공모에서 뽑힌 글들을 가려 묶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머리말에서 “신행수기 공모는 기도와 신심이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핵심을 공표하는 장이라 할 수 있다”며 “온갖 어려움에 직면해 불보살님의 지혜와 가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

기들은 불자들에게 큰 힘이 되고, 새로운 신행문화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의 체험을 적어내려간 이 글들속에 등장하는 공모 당선자들의 삶은 저마다 고단했다. 70대 초반 노년기에 갑작스럽게 아내를 잃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삶 속에서 하나씩 참회하고 깨닫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 90년대를 지나면서 겪은 심한 경제적 문제와 좌절감 속에서 정면 대응하며 자신만의 일을 깨끗하게 챙기며 당찬 삶을 살아온 50대 여성 이야기, 장애인으로서의 고립감을 극복하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한 이야기 등 기도와 눈물로 써 내려간 가슴 절절한 감동의 기록이 담겨 있다. 특히 이 글들은 그동안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바로 나의 문제로도 절실히 다가오기 때문에 더욱 생생하게 느껴진다. 어떤 대목에서는 눈물이 앞을 가려 책장이 흥건히 적셔지기도 한다. 그만큼 우리에게 삶은 누구에게나 천차만별의 고단이 뒤따른다는 의미다. 그래서 그 역경을 극복한 신행담은 큰 감동으로 다가온다. 분명 신행수기 모음집은 이 시대의 신행문화를 하나로 묶는 결집과 발원의 장이며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나침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주일 기자

# 불교의례 알면 지향점 보인다

한국불교 의례체계연구

이상운 지음 | 운주사 펴냄 | 2인3천원



의례란 교리나 사상이 실천과 행동으로 나타나 정형화된 것이다. 종교의 의례는 그 종교적 이상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기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불교의례는 불교의 지향점, 즉 내가 부처가 되고, 다른 이들이 부처가 되도록 도와주는 반복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다.

불교가 비록 깨달음의 종교라 할지라도 그 신앙행위의 실재를 보면, 자신들이 믿고 따르는 대상에 대한 신앙과 예경, 공양, 그리고 그들에게 소원을 비는 의례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현재 한국불교 의례체계에 대해서로 다른 견해와 인식이 상존하는 것을 전제하고, 현행 의례의 구조와 형성된 과정과 그것에 대한 의례 수용자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의례 체계를 밝힌 것이다. 그 가운데서 특히 한국불교의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지는 상용의례인 시식과 공양,

예경과 송주를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시식의례로는 관음시식, 공양의례로는 삼보 통청을 고찰한다. 또한 불교의례의 보편적이고 긍정적인 측면과 아울러 한국불교 의례체계의 특수성을 정리했다.

이 책은 서론과 결론을 포함해 모두 6장으로 구성됐다.

제 2장 ‘한국불교 의례’ 편에서는 한국불교 의례의 종류와 분류 유형, 구조 체계 등을 개괄하고 있다. 먼저 한국불교의 의례

### 의례체계 일목요연히 정리

관음시식과 삼보통청 체계 밝혀

를 담고 있는 의례 서적의 자료 목록을 현대 이전과 이후로 나눠 제시한다. 이어 한국불교 의례의 분류 유형을 살펴보고, 끝으로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상용의례인 관음시식과 삼보통청의 구조와 그 체계들을 밝힌다.

또한 제 4장 ‘공양의례’ 편에서는 음식 등 일체의 물건을 올리는 의례를 공양이라고 인식한다는 점에 의거해 시식이나 공양이라는 용어를 구분한다. 이런 전체 하에서 공양의례 구조와 주요 개념을 개괄한 뒤

에 한국불교의 주요 공양의례라고 할 수 있는 삼보통청과 진언권공, 사시마지 구조를 분석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공양의례를 소칭(봉칭)에서 헌좌, 변공, 헌공, 풍경, 표백 의식에 이르는 여섯 단계로 나눠 그 체계와 인식 등을 설명한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지금까지 한국불교의 상용의례인 시식·공양의례와 그 의례를 여법히 봉행하기 위한 수행인 예경·송주 의례의 구조와 의미, 형성추이와 그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것에 대해 한국불교 의례 구조의 특수성과 보편성이라는 측면에서 이를 보완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가 한국불교 의례 체계를 밝히는 것은 의례를 옛날로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 체계를 바로 이해해 바르게 알고 설명하자는 데 있다.

불교의례를 바로 알면 한국불교 의례의 특징인 역동성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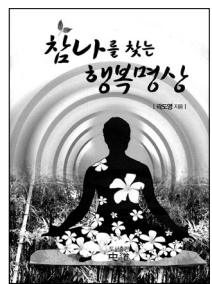
이 역동성은 의례현장에 적합한 새로운 의례를 늘 생성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의례체계의 이해가 절대적이라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그래서 이 책은 이런 한국불교 의례의 체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분석틀을 제시해 준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 힐링명상 통해 ‘참나’ 찾자

참나를 찾는 행복명상

곽도영 지음 | 종도기획 펴냄 | 1인 8천원



힐링명상이 시대적 트렌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용인대 교양학부서 명상학을 강의하는 곽도영 박사는 힐링명상의 텍스트가 될 만한 책, 《참나를 찾는 행복명상》을 펴냈다.

저자 서문에서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을 이렇게 밝힌다. “명상은 참나를 찾는 진정한 수행입니다. 참나를 찾는 일은 사바세계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일지라도 분석과 추리는 잘할 수 있으나, 단순화시켜 지혜를 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상은 안팎으로 마음 흐름에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변화를 알아차려, 온전하게 현재의 ‘깨어있음’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 일은 몸이 하는 것을 마음이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안다는 것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차린다는 뜻입니다. 알아차린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하나이고 나아가 우주와 자신과의 소통입니다.”

이 책의 구성은 용인대는 물론 (사)한자교육진흥원 평생교육원과 공무원 및 공공기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한 강연, 사찰명상법회 등의 강의 경험을 바탕으로 명상학 강의 교재형식을 취했다.

이 책은 총 10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이중 행복을 부르는 명상 및 웰빙과 웰다잉 명상 등을 다룬 제 5장 참나를 찾는 행복명상 편과 제 10장 종교에 대한 명상편은 명상에 대한 개념 정리를 확실히 해주고 있다. 특히 제 10장은 몸과 마음을 닦는 불교수행법, 사홍서원에 대한 명상 등을 다룬다. 저자는 “참나를 찾는 그 날부터 자신의 삶은 고통서 기쁨으로, 좌절서 열정으로, 불행서 행복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우리 모두가 꾸준히 힐링명상을 한다면, 개인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정신이 건강한 세상으로 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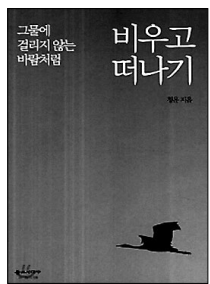
### 저자 곽도영 박사는?

연세대를 졸업한 뒤 동국대불교대학원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했다. 현재는 용인대 교양학부서 명상학을 강의중이다.

## 10여년 ‘이뵈고’ 수행 소회

비우고 떠나기

청은 지음 | 불교시대사 펴냄 | 1인5천원



10여년의 ‘이뵈고’ 수행 끝에 찾아낸 스님의 한 살림을 풀어 놓았다. 화두를 들면 온갖 중생들의 번뇌가 들끓는 현실이 안타까워한 소식을 풀어 대중에 지혜를 심어 주려고 많은 노력을 했다. 이 책은 스님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생들의 지혜를 열고자 한다.

몸을 편안하게, 따뜻이 입고 배불리 먹으려는, 명예와 재물을 구하려는 것도 아니다. 삼계에 뛰어나서 중생을 건지려는 원력 때문이다. 중생은 생과 사를 돌로 본다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육안으로는 육신밖에 못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법안(法眼)으로 법신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본다는 것이다. 즉 법은 하나이기 때문에 지혜를 가진 이는 생사를 하나로 본다. 더 나아가 생사마저도 없다고 설명한다.

한국 불교는 간화선을 추구하는 종교로서 화두를 탐구한다. 의심에 의심을 품고

똥고 나가는 간화선은 한국불교를 대표한다. 저자인 청은 스님도 간화선을 통해 지혜가 열리는 기쁨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포교의 원력으로 알리고자 했다.

저자는 “‘이뵈고’는 중생의 중생을 고치기 위한 단방약으로 금성성불은 물론 육계의 삶 속에서 대변혁을 이루고, 집착과 애착을 비워 생사없는 높은 차원의 세계로 가기 위한 수행법”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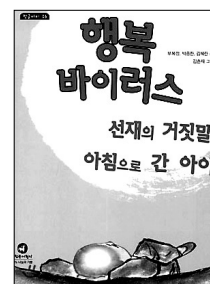
책은 총 3장에 걸쳐 주제별로 나뉘어져 있다. 제 1장인 ‘하늘 거울에 비친 내모습’을 비롯해 2장 ‘오직 모르고 모를 뿐이다’ 제 3장 ‘수 많은 나 속의 참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제별로 조사어록과 경전 내용을 인용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예를들면 ‘주인공으로 살아가라’ 편에서는 대주혜해 선사와 마조선사의 일화를 들었다. 대주 선사가 물었다. “어떤 것이 제 집에 있는 보물 창고입니까?” 그러자 마조가 대답한다. “지금 나에게 묻는 그대가 바로 보물 창고이다. 가기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마음껏 쓸 수 있는데, 어찌 밖으로만 그것을 구하려 하는가?”라고 답했다. 대주 선사는 마조의 말을 듣는 순간 스스로 본래 마음을 깨달아 났 듯이 기뻐하며 큰 절을 올렸다. 김주일 기자

## 나누면 기쁨이 배가된다

행복바이러스/선재의 거짓말 /아침으로 간 아이

부북정, 박종현, 김혜란 글 | 김춘재 그림  
참글 어린이 펴냄



《행복 바이러스》는 동화를 통해 나눔이란 누구를 불쌍히 여기거나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고도 명료하게 가르쳐 준다. 주인공 누리의 입을 통해서다.

누리는 “저는 그냥 제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나누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냥요.”라고 짧고 쉽게 이야기한다.

다른 것으로 돌려받기 위해서, 혹은 어떤 결과를 바라고 하는 나눔이 아니라 나누는 행위 그 자체로 벌써 자신에게 기쁨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이 책은 불교신문 신춘문에 동화 부문 당선작 세 편을 모은 책이다. 부북정의 《행복 바이러스》는 2013년, 박종현의 《선재의 거짓말》은 1998년, 김혜란의 《아침

으로 간 아이》는 2004년에 각각 당선됐다. 대략의 줄거리들은 이렇다.

《행복 바이러스》는 나눔의 기쁨을 가르쳐 주는 이야기이다. 누리는 할머니와 둘이 산다. 엄마, 아빠가 어린 누리를 두고 멀리 돈을 벌러 가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느 날 누리가 학교에 결석하게 됐다. 할머니가 갑자기 편찮으셔서 할머니 대신 김밥을 팔아야 했기 때문이다.

친구들은 그제서야 누리가 김밥 장수인 할머니와 둘이 살고 있는, 형편이 그리 좋지 않은 가정의 아이임을 알게 되었다. 누리를 찾아가 도와준 반 친구들은 누리에게 봉사나 나눔의 마음씨를 배워 ‘누리 봉사단’을 만들고 열심히 활동했다.

이런 소문이 퍼져 누리네 학교가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인터넷도 하게 되었다. 그러자 그동안 소식조차 끊겼던 누리의 아빠가 TV를 보고 누리를 찾아와, 누리는 이제 정말로 부러울 것 없는 아이가 되었다.

이외에도 《선재의 거짓말》은 부처님 오신 날, 절에서 일어난 이야기가 주제며, 《아침으로 간 아이》는 절에 사는 연우가 어떤 친구를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을 그렸다.

김주일 기자

#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 삶은 고가 아니다

초판 22세의 스테디 셀러!!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롭게 함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애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http://www.hyunbulshop.com)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법어·게송·선화의 집대성 [품절]  
 ▶ 신행요전(법요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대행스님의 뜻으로 된 금강경 (독송용)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된 천수경 (한글/영어)

10,000원 A5 / 287쪽

\*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